

海外業界動向

세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

세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장(게임 소프트웨어 제외)은 연평균 13.6%의 성장이 예상되어 작년의 370억 달러에서 '97년에는 7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의 시장조사회사인 가트나그룹이 Ce-BIT 전시회에서 밝힌 이 예측이 실현될 확률은 70%라고 同社에서는 말하고 있다. 同社는 매출신장이 '80년대의 평균 30%에서 절반이하로 하락한 결과, 업계의 이익률은 이제까지의 약 15%에서 금후 5년간은 2% 전후로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트나그룹은 또, 정보화시장 전체의 매출에 대해 평균 9.2%의 성장으로 작년의 3,000억 달러에서 '97년에는 약 4,7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부문과 모든 지역에서 시장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기술혁신은 쇠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포화점에 달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의 룸 에어컨 수요 전망

작년의 룸 에어컨 세계 수요는 약 1,600만대. 이를 지역별로 보면 미국 260만대, 일본 603만대, 중국 200만대, 동남아시아 200만대, 중동지역 130만대, 유럽 80만대, 중남미 70만대, 아프리카 30만대, 호주 20만대 등이었다. 세계 최대 수요지역인 일본의 경기침체 영향에 의한 대폭적인 수요감소 외에, 미국에서도 기온하락에 의해 수요가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에서의 룸 에어컨 수요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상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아시지역은 작년에도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예상외의 상승속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의 룸 에어컨 수요는 '91년 80만대, '92년 200만대에서 금년도에는 250만대로 수요가 신장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룸 에어컨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가구구조 등의 영향으로 창문형 타입이 수요의 중심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분리형 수요도 서서히 늘고 있어, 양적확대 외에 투자가치면에서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기타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수요확대는 없었지만, 꾸준히 안정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신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미국도 작년보다는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기타지역에서도 룸 에어컨의 보급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의 반도체시장 동향

미 반도체 시장이 신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 발표된 인텔과 모토롤라의 제1/4분기(3월말시점) 실적에 의한 것이며, 미 2대 반

도체 회사인 兩社는 모두 매출에 있어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다.

특히, 인텔의 경우 그 수익증가의 요인은 「486」 CPU의 판매호조에 의한 것이며, 대수의 신장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PC의 가격하락으로, 금년 3월에 다시 가격인하 경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즈 보급과 함께 486 탑재기와 탑재 보드의 수요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텔은 1.4분기에 최초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순이익의 신장폭은 더욱 커, 전년대비 198% 증가한 5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모토롤라는 제 1/4분기에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36억 3,000만 달러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순이익은 36%가 신장한 2,400만 달러. 同社에 의하면, 반도체부문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억 8,000만 달러로 매출증가의 요인은 애플-맥킨토시의 판매호조에 의한 것이다.

이전에는 IBM의 호환기종과는 완전히 전락을 달리하여 고가격 노선을 고수해 오던 애플이었지만, 격렬한 가격경쟁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작년부턴 가격인하 및 저가격 제품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Power book Duo」 기종의 가격인하판 「Performer」제품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미, 인텔의 '93년 1/4분기 결산 실적

미, 인텔社는 최근 '93년도 1/4분기 실적을 발표, 同期 단독매출이 20억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분기당 매출이 20억 달러를 초과한 것은 同社 25년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로, 1/4분기 매출은 20억 2,356만 달러였다. 전년동기의 12억 4,129만 달러와 비교하면 63% 증가한 것이다.

순이익은 5억 4,795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1억 8,407만 달러에서 198%나 뛰어올랐다.

인텔은 작년도 4/4분기에는 단독 매출이 1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을 뿐이었다. 同社의 사장은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데 22년이 걸렸다. 하지만 「486」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폭발적인 매출호조 덕택에 3년안에 2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인텔사는 제 5세대에 상당하는 CPU 「펜텀」을 3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수요증가에 대비해, 뉴 멕시코 주리오란초 공장에 10억 달러를 투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미, 모토롤라의 '93년 1/4분기 결산 실적

미국의 반도체-통신기기 메이커인 모토롤라社는 1/4분기에 수익증가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매출은 36억 3,000만 달러로(전년동기: 30억 5,000만 달러), 순이익은 2억 400만 달러를 기록(전년동기 200만 달러). 작년 1.4분기 이익은 기업회계규칙의 변경에 따른 1억 2,500만 달러의 일시적 出費때문에 보통보다도 적은 숫자가 기록되었다.

1~3월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2억 8,000 달러로 17期 연속증가를 기록하였다. 수주는 35% 증가하여 일본을 포함한 모든 주요시장에서 2자리수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기기는 매출이 19% 증가한 10억 9,000만 달러로 수주는 24% 신장하였다.

또한, 종합시스템은 매출이 33% 증가한 10억 6,000만 달러로 수주는 26% 증가하였다.

미, AMD의 '93년 1/4분기 결산 실적

미국의 반도체 메이커인 AMD의 1/4분기 실적은 매출이 4억 743만 달러로 전년대비 미증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00만 달러 하락했지만, '92년 4/4

분기 보다는 1,000만 달러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이 8,500만 달러(전년동기: 9,9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은 경상영업손실 및 기타 지불유예 기간의 만료로 인해, 세율이 28%나 높았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대형 컴퓨터업체와 소프트하우스 협력 체제 구축

유럽의 대형 컴퓨터업체와 소프트하우스 등이 협력하여, 스페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

참가 기업은 스페인의 빌바오 비스카이아 쿣사,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 스페이스 등 4개사, 프랑스의 캡 제미니, 이탈리아의 올리베티 등 2개사, 독일의 지멘스 닉스돌프 등이다. 각사는 각각 10만 ECU를 투자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금년 여름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50명의 책임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프트의 개발에 관심을 가진 유럽기업은 회원이 될 수 있다.

동 연구소의 책임자는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유럽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로 그 배경은 산업계가 확대하고 복잡해져 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점차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정보통신기기 시장 동향

독일 중앙전기공업회(ZVEI)와 독일기계설비연맹(VDMA)에 의하면, 독일의 정보 통신기기 시장의 금년도 신장률은 3~5%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동 시장규모는 작년에는 920억 마르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포함시킨 것이지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외한 것으로, 구동독의 전기통신 기반시설 구축,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부문의 호조에 의한 것

'93년 독일의 정보통신기기 시장

(단위: 억DM, %)

구 분	매출	전년대비 신 장 율
매출총액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장)	920	7%
사무·정보기	720	6%
사무기기 (FAX·서비스 포함)	70	5%
정보기기(하드웨어만)	320	1%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유지보수 포함)	330	12%
통신기기	200	6%

자료: ZVEI/VDMA

으로 兩단체는 분석하고 있다.

냉엄한 국제경쟁 속에서 가격인하·코스트상승 등의 원인으로, 정보기술기기의 생산고는 40% 감소한 370억 마르크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작년의 통신기술부문은 전년대비 7% 신장하였는데, 이는 구동독의 기반시설 구축과 디지털 이동통신의 급성장에 의한 것이지만, 생산자 가격은 1985년을 100으로 했을 때 평균 4%씩 하락하여 非케이블 통신시스템의 생산자 가격은 약 12% 하락, 생산고는 전년대비 3.8% 신장한 215억 마르크였다.

사무기기 부문은 하드웨어 생산고가 4.8% 감소한 23억 마르크, 수출은 3% 증가한 29억 마르크, 수입은 3.2% 감소한 37억 마르크, 사무기기시장 매출은 작년에 5% 증가한 70억 마르크였다.

정보기술부문은 작년, 하드웨어의 생산고가 19.7% 감소한 134억 마르크 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9.3% 감소한 122억 마르크, 수입은 2.8% 증가한 249억 마르크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부문은 12% 신장한 330억 마르크. 「금년도 독일시장 규모는 3~5%의 신장이 기대되지만, 이는 침체되고 있는 독일경제의 향방과 세계 경제회복 여하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독일 텔레콤의 광섬유망 파일로트계획 추진

광섬유통신망(OPAL : Optical Access Line)에 의해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행할 목적으로 독일내의 7개 도시에서 아날로그 통화·광대역 통신·ISDN·IDN(Integrated text Data Network) 등의 각종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동 계획에서는 금년내에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0만 세대씩 늘릴 계획이다.

OPAL은 파일로트계획의 7개 도시에 더하여 금년중에 베를린, 비스마르크, 드레스덴 등 구 동독의 26개 도시에서도 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DBP텔레콤은 광섬유통신망의 제 2단계로서 작년부터 「VISION」(가변인텔리젠트 동기 광통신망)을 확장 개시하였는데, 이것은 Junction Line level에 표준 동기전송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64Kbit/ch에서 140Mbit/초의 프랙시블·트랜스포트 용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의 3만 720 음성채널을 '90년대 후반에는 10만 채널로 늘릴 계획이다.

VISION의 파일로트 계획은 4개 도시에서 개시되었는데, 금년에는 베를린, 로스톡,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뉴렌베르그 등 32개 도시로 확대된다.

독일 지멘스, 아시아시장에 주력

독일의 지멘스는 아시아의 통신시장을 점차 중요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同社 사장에게 의하면, 특히 중국시장의 눈부신 성장으로 최근 5개월간 EWSD형 디지털 교환기를 140만 회선분을 수주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 필리핀시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아시아·태평양권의 매출이 향후 3년간 5배 증가할 것으로 同社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합작에 의한 현지생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上海에는 휴대무

선전화 Base局과 단말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同社は 또한 금년 9월말까지 통신시스템의 매출이 전년동기의 186억 마르크에서 200억 마르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ISO 9000시리즈 인증기관 동향

ISO 9000시리즈는 '87년 3월 ISO가 제정한 품질관리 및 품질인증을 위한 일련의 국제규격이다.

일본에서도 ISO에서 결정된 사항은 JIS(일본 공업표준규격)에도 삽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91. 10, ISO 9000을 「JISZ9900」이라고 하는 형태로 JIS규격화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종래부터 이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JMI, RCJ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JMI에서는 영국 BSI(영국규격협회)와 제휴해,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4건, '91년도에 8건으로 과거 2년간의 누계로서는 불과 12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92년에 들어서서는 신청기업이 급증하여, 5월경부터 인증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금년 1/4분기에만 50건, 연간('92. 4~'93. 3)으로는 누계 162건에 달하고 있다.

'92년도 인증등록기록은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AV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기기·전자부품 업종이 전체의 약 75%를 점하고 있으며, 전자공업 이외의 업종으로는 화학공업 분야가 많다.

JMI에서는 인증신청기업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주임심사원을 포함해 심사원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심사팀 수를 금년 9월까지 현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5개 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93년도에는 새로이 600건의 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IECQ의 일본내 감독 검사기관인 RCJ에서는 IECQ제도에 의한 국내의 ISO 9000시

리즈의 인증신청접수를 작년 5월 1일부터 개시하여 同 7월에 첫번째로 15개 공장·사업소를 인증하였으며, 그후 순차적으로 신청에 따라 인증작업을 실시해, 금년 1~3월까지의 10건, '92. 4~'93. 3까지 누계로는 15건의 인증을 행하였다.

또한 현재 30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도 가까운 시일내에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RCJ에서도 내부 규정 등을 수정해, 검토 및 심사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93년도에는 ISO 9000 인증제도에의 대응을 사업계획의 중점항목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전자업체의 현지법인 VTR 생산 동향

말레이시아의 일본계 전자업체 각사는 '90년 경부터 VTR현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91년부터는 거의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가, 생산면에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의 37개 공장에서 VTR을 생산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마쓰시다 오디오비디오」 현지법인에서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에는 약 20% 증가한 30만대를 증산할 계획이다.

히다치는 「히다치 일렉트로닉 프로덕츠(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서 '89년 10월부터 VTR생산을 개시하여, '91년 60만대, '92년 80만대를 생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북미, 아시아지역 외에 일본시장으로의 수출도 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에는 국내 판매량에 접하는 수입제품의 비율을 15%에서 30%로 올린 바 있다.

샤프는 「샤프 Mfg·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서 '89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91년에 150만대, '92년에 145만대, 금년에는 180만대를

계획하고 있다. 북미 수출용의 HiFi VTR생산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일본시장에의 역수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빅터는 해외에서의 VTR생산에 있어, 독일의 톰슨과 합작을 통해, 「J.J」라는 이름으로 EC시장용의 VTR을 생산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89년 5월부터 필립스와 「PJV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VTR생산을 개시하였다. '91년에 70만대, '92년에는 2배나 증가한 150만대를 생산하여 북미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일본시장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 200만대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니에서는 프랑스의 「소니 프랑스」, 대만의 「소니 비디오 타이완」 등에서 VTR을 생산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90년 11월부터 「소니 비디오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해외 3개 공장을 모두 합쳐 월 20만대를 넘고 있다.

미쓰비시 전기에서도, 금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의 VTR생산을 모두 培增시킬 계획이다.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의 말레이시아 현지 VTR 생산 동향

(단위 : 만대)

업체명	생산규모		생산품목
	'92	'93년(계획)	
마쓰시타 전기	25	30	거치형VTR(VHS)
히다치	80	90	〃
샤프	145	180	〃
日本빅터	150	200	〃
니	프랑스, 대만 합쳐 월20만대	〃	8미리 비디오, 거치형VTR(VHS)
미쓰비시 전기	25	44	거치형 VTR(VHS)

최근 1~2년 동안 말레이시아 VTR생산의 일대 생산거점으로써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円高회피를 위해 보급형의 대미 수출용 거점으

로써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 후 보급형에 더하여 하이파이 VTR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본의 VTR시장에서 말레이시아제의 점유비율이 상승할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작년에 일본시장에 들어온 말레이시아産 VTR은 22만 5천대로 이것은 전년대비 약 6 배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92년 대외 제품수입 동향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최근 발표한 '92년도 일본의 제품수입 총액은 내수침체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1천 169억 달러로, '85년 이래 7년만에 감소를 나타냈다.

수입전체에서 점하는 제품수입의 비율은 50.2%로, '91년에 비해 0.6% 하락하여 '80년 이래 계속된 증가경향에서 一轉, 감소로 돌아섰다. 반기별 전년동기대비 신장률도 '91년 하반기부터 3期연속 감소하고 있어, 감소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이나 ASEAN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은 소비자의 저가격지향 등도 반영되어 의류 등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품목별로는 제조업의 생산저하 영향으로 철강·비철금속 등은 25.5% 감소 하였지만, 역수입이 증가한 AV기기 및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은 신장세를 보였다.

중국과 아세안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0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8% 증가를 보여 제품수입 상대국으로서의 전년의 4월에서 미국에 이어 2위로 부상했고, 태국도 17.4% 증가해 11위에서 9위로 부상하였다.

일본 후지쯔, 미 AMD와 합작

일본의 후지쯔와 미 AMD社는 최근 후레쉬 메모리 등의 제조를 행하는 합작회사 「후지쯔 AMD 세미콘다터」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합작회사는 자본금 1억엔(최종적으로 400억엔)

으로 후지쯔가 50.05%, AMD 49.95%를 출자한다.

本社は 카와사키市, 공장은 '94년말 조업개시를 목표로 후지쯔 若松공장 대지에 건설한다.

兩社は 후레쉬메모리, EPROM의 공동개발 및 제조·판매를 포함하는 제휴에 작년 7월 기본합의를 마치고 최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합작제조회사를 설립, 6월부터 8인치 웨이퍼를 0.5미크론 이하의 프로세스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공장의 건설을 시작한다.

후레쉬 메모리의 시장규모는 '92년 300억엔에서 '97년에는 3,200억엔 정도가 예상되어, 장래에는 DRAM에 필적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세가, 미국 CATV 대기업 등과 합작회사 설립

가정용 게임기 대기업인 일본의 세가 엔터프라이즈사는 최근 미국의 CATV 대기업인 텔레·커뮤니케이션스(TCI) 및 타임워너(TW)와 공동출자하여, 미국 CATV 이용자에게 게임소프트를 공급하는 신회사를 8월까지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합작회사가 설립되게 되면, CATV망을 사용한 게임소프트 공급사업이 세계에서 최초로 행해지는 셈이다.

세가는 미국내에서의 게임기 판매에서 최대기업인 닌텐도와 격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 데, 이제 새로운 소프트 공급처를 CATV에서 찾게 됨으로써, 닌텐도를 따라잡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의 2개사도 다채널화의 흐름 속에, 종래의 영화나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더하여 CATV의 보급을 도모할 계획이다.